스트레이 키즈, 美스타디움 입성

내년 3월 31일 LA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
트와이스 지난 5월 입성…오는 20일 블랙핑크 공연

차세대 K팝 보이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스키즈)'가 글로벌 수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이어 K팝 보이그룹 사상 두 번째로 북미 스타디움 공연장에 입성한다.

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스트레이 키즈는 내년 3월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Banc of California Stadium)에서 두 번째 월드투어 '매니악'의 앙코르 공연을 펼친다.

K팝 그룹들의 북미 투어가 이어지고 있지만 2만석 이상 규모의 스타디움 공연장에 입성한 팀은 드물다. 인기 있는 팀의 경우 1만석 이상의 아레나 급에서 공연하거나 신인급들은 1만석 미만의 홀 무대에 오르고 있다.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은 트와이스가 지난 5월 2차례 월드투어 앙코르 콘서트를 연 곳으로, K팝 걸그룹 첫 북미 스타디움 공연의 포문을 연 곳이기도 하다. 트와이스와 함께 K팝 걸그룹을 대표하는 '블랙핑크'가 오는 20일 월드 투어 '본 핑크(BORN PINK)'의 하나로 이곳 무대에 오른다.

스트레이 키즈는 올해 들어 북미 시장에서 주가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월18일 발매한 미니 6집 '오디너리(ODDINARY)'로 4월 2일 자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처음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6개월 3주만에 미니 7집 '맥시던트(MAXIDENT)'로 지난달 22일 자 '빌보드 200'에서 다시 정상을 차지했다.

스트레이 키즈는 일본에서 월드투어 앙코르 콘서트를 연다. 특히 2018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일본 돔 공연장에 입성한다. 내년 2월 11일~12일 일본 도쿄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25일~26일 오사카 교세라 돔에서 공연한다.

올해 스트레이 키즈는 4월 29일~5월 1일 사흘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새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6월과 7월에 미국과 일본에서 공연을 했고 9월에는 국내 콘서트 성지로 통하는 케이스포돔(KSPO DOME·올림픽체조경기장)에 입성했다. 오는 12일~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23년 2월 2일~3일 태국 방콕, 5일 싱가포르, 17일~18일 호주 멜버른, 21일~22일 시드니, 3월 22일~23일 미국 애틀랜타, 3월 26일~27일 포트워스 등으로 이어간다.

이에 따라 스트레이 키즈는 이번 LA·도쿄·오사카 추가 앙코르 공연을 포함 전 세계 17개 도시에서 39회 공연으로 월드투어를 마무리하게 된다.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영화 '올빼미' 23일 개봉

콘진원 "스토리 창작지원사업 결실 맺어"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스토리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던 '올빼미소년'이 오는 23일 영화 '올빼미'로 개봉한다.

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영화 '올빼미'는 밤에만 앞이 보이는 맹인 침술사가 세자의 죽음을 목격한 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벌이는 하룻밤의 사투를 그린 스릴러 영화다. 유해진·류준열 배우가 주연을 맡았다.

이 작품은 2013년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스토리부문(전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우수상을 수상한 '올빼미소년'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1298편의 접수작 중 18편 내에 선정되며 7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랜 수정과 제작의 과정 끝에 이달 영화로 제작돼 관객을 만나게 된다.

영화 '올빼미' 원작자 김보현 작가는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 덕분에 내 이야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이 콘진원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 관객과 독자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올해 14회를 맞은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스토리부문은 국내 최대 작가·창작자 대상 정부 포상 사업이다. 매년 공연·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만화(웹툰)·출판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원천스토리를 발굴하고 있다.

영화 '올빼미' 외에도 얼마 전 tvN에서 종영한 드라마 '블라인드'도 스토리 창작센터 입주작가의 집필작이다.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스토리 창작센터는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통해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의 김지은 작가, '구필수는 없다'의 손근주 작가 등 유명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했다. 올해도 40명의 작가들이 스토리 창작센터에 머물며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개봉한 영화 '미혹'은 콘진원에서 서비스하는 스토리 유통 플랫폼 '스토리움'을 통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스토리움은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와 새로운 소재를 찾는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스토리 유통 플랫폼이다. 현재 약 1만8000명의 가입자와 4900여 편의 스토리를 보유, 61개 작품이 사업화됐다.

콘진원 대중문화본부 김락균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K-스토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인 스토리 창작자부터 스토리 지적재산권(IP)을 사업화하는 제작사까지 K-콘텐츠가 탄생하는 전 과정에서 사각지대 없는 창작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뉴이스트 출신 김종현, 첫 솔로 '메리디엄'

그룹 '뉴이스트' 출신 김종현이 첫 솔로 앨범을 발매한다.

김종현은 8일 오후 6시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미니앨범 '메리디엄(MERIDIEM)'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메리디엄'은 김종현이 데뷔 후 10년 만에 발표하는 첫 솔로 앨범이다. 라틴어로 정오를 의미하는 앨범명은 새로운 분기점에 선 김종현의 시작과 성장을 오전과 정오, 오후로 이어지는 스토리에 담았다.

타이틀곡 '라이츠'는 자유로운 빛처럼 새로움을 추구하는 김종현의 모습과 그런 김종현을 비추는 수많은 팬의 만남을 그린 힙합 댄스 장르의 곡이다. 김종현이 작사에 참여해 팬들을 향한 믿음과 설렘을 표현했다.

신곡 발매에 앞서 지난 7일 공개된 타이틀곡 '라이츠' 퍼포먼스 티저는 댄서들과 합을 맞춘 퍼포먼스로 힙한 무대를 예고했다.

타이틀곡 외에도 이번 앨범에는 인트로 '인투 더 라이트(into the light)',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가겠다는 김종현의 포부를 담은 '블레이즈(Blaze)', 오랜만에 팬들을 만난 김종현의 설렘을 담아낸 '반가워(데칼코마니, decalcomanie)(feat. MRCH)', 본인만의 정체성에 대한 고뇌가 담긴 '크리에이터(Creator)', 팬송 'to.( )'가 함께 수록된다.

김종현은 앨범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해 록, 힙합 등 다채로운 장르를 수록하며 팬들과 본인의 이야기를 표현했다.

한편, 김종현의 첫 번째 미니앨범 '메리디엄'은 8일 오후 5시 카운트다운 라이브로 팬들을 먼저 만날 예정이다.

엄정화·조승우·한지민까지…JTBC 드라마 대중성 잡을까

2023 드라마 라인업 공개

JTBC가 내년 드라마 라인업을 공개했다. 올해 흥행 부진이 지속됐는데, 내년에는 신선한 소재로 시청자를 끌어당길 수 있을까.

엄정화 주연 '닥터 차정숙'이 새해 시청자를 찾는다. 20년차 가정주부에서 1년차 레지던트가 된 '차정숙'(엄정화)의 찢어진 인생 봉합기다. 남편인 대장항문외과 과장 '서인호'(김병철) 배신으로 각성한 정숙의 인생 리부팅 도전기가 웃음과 공감을 살 전망이다.

'대행사'과 '신성한 이혼'도 기대작 중 하나다. 대기업 광고대행사 최초로 여성 임원이 된 '고아인'(이보영)이 최초를 넘어 최고의 위치까지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그린다. 아인은 소위 스펙 흙수저이지만, 성공을 향한 욕망과 독기 하나로 대기업 광고대행사 최초 여성 임원이 된다. '신성한 이혼'은 이혼전문 변호사 '신성한'(조승우)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다. 이혼이라는 삶의 험난한 길 한복판에 선 이들에게 최고의 승소를 선사한다.

배우 한지민은 김석윤 PD와 '눈이 부시게'(2019)에 이어 손을 잡는다. '힘하게'(가제)는 사이코메트리 초능력을 발휘하는 수의사 '예분'(한지민)과 열혈 형사 '장열'(이민기)이 충청도 무진에서 자잘한 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서로에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담는다. 그룹 '2PM' 이준호와 '소녀시대' 임윤아는 '킹더랜드'에서 만난다. 웃음을 경멸하는 '구원'(이준호)과 웃어야만 하는 '천사랑'(임윤아)이 호텔리어들의 꿈인 VVIP 라운지 킹더랜드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을 만들어간다.

이 외 라미란 주연 '나쁜엄마', 정우 주연 '기적의 형제', 이유미 주연 '힘쎈여자 강남순', 엄태구 주연 '놀아주는 여자' 등도 만나볼 수 있다. '끝까지 간다'(가제)와 '이 연애는 불가항력' '웰컴투 삼달리' 등도 준비 중이다.

윤희웅 전략편성실장은 "2023년 JTBC 드라마 키워드는 대중성"이라며 "작품 완성도는 물론이고 얼마나 많은 시청자에게 다가갈 수 있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뒀다. 작품마다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대중에게 사랑 받는 드라마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러닝타임 2시간30분…'한산' 감독확장판 오는 16일 개봉

'이순신 3부작 프로젝트' 연결하는 쿠키영상

영화 '한산: 용의 출현' 감독 확장판이 나온다.

8일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16일 '한산 리덕스'를 선보인다. 7월 개봉한 한산: 용의 출현(누적관객수 726만명)보다 러닝타임 21분15초 늘어난 2시간30분 버전이다. 11일 오후 7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쇼케이스와 스페셜 시사회를 연다.

1592년 임진왜란 초기, 조선의 운명을 건 해전을 앞둔 '이순신'(박해일) 장군의 고뇌와 전투에 임한 이들의 못다 한 이야기를 다룬다.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다양한 인물 서사와 함께 한산해전 시퀀스가 더욱 풍부해진다.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모습은 물론 왜군 진영의 연합 계기와 의병들의 이야기를 녹인다.

김한민 감독은 "더욱 풍성해진 드라마와 해전의 완벽한 완성에 초점을 두고 작업했다"고 귀띔했다. 본편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과 어머니가 출정 전 대화를 나누는 장면, '권율' 장군으로 분한 김 감독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다.

이순신 3부작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쿠키영상까지 담았다.

배우 이정재 '스타워즈' 새 시리즈 합류

배우 이정재가 '스타워즈' 새 시리즈에 합류했다.

8일 디즈니플러스에 따르면, 이정재는 영국에서 '애콜라이트' 촬영을 시작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2021)으로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시상식에서 아시아 배우 최초 남우주연상을 받았는데, 애플라이트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애콜라이트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1 - 보이지 않는 위험'의 100년 전 이야기다. 공화국 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은하계의 어두운 비밀과 새롭게 떠오르는 다크사이드 이야기를 담는다. 루카스 필름 사장 캐슬린 케네디가 총괄 제작하며, 레슬리 헤드랜드 감독이 연출한다.

할리우드 스타도 대거 출연한다. 어맨들라 스텐버그를 비롯해 매니 저신토, 다프네 킨, 조디 터너스미스, 레베카 헨더슨, 찰리 바넷, 딘 찰스 채프먼, 캐리앤 모스 등이다.